

어린이도서관의 문제점

김 호 정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어린이는 새 나라의 기둥” “어린이를 보호하자” “어린이를 사랑하자” 등의 여러 구호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에게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어린 새싹이므로 어른들의 끈임없는 보살핌과 손길을 필요로 한다. 즉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자라,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귀중한 존재가 어린이라는 말이다.

어린이가 귀한 존재라는 말은 누구나 수긍하며 인정하는 말이다. 세계를 일주하고 돌아오신 어느 교수는 우리 나라 어린이가 같이 불쌍하고 천대받는 어린이는 없다고 말한다. 어른이 어린이를 필요로 할 때, 어린이가 재물을 피울 때, 귀엽게 보일 때를 제외하고는 어른의 관심 밖에서 그들의 세계를 적당하게 이어 나간다. 단 한번이라도 몇몇하게 어린이로 대우받지 못하고 보살피 줄 이도 없다가 어른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몹쓸 사람으로 인정받기 일수이다. 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멸시 당하고 그 장면(場面)에서 제거당하는 예가 극히 많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여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다. 이때 어른들은 더욱 어린이를 꾸짖게 되고 어린이들은 더욱 더 비정상 길을 출달음치게 된다.

어린이도 어른과 꼭 같은 전인적(as a whole person)인 인간이다. 미성인간, 즉 덜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개체로 인정 받아야 하는 인간인 것이다. 어린이들은 아직 경험이 없다 뿐이지 모든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활동할 수 있다. 비록 미약하다해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고, 행동, 욕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른이 되어 가질 수 있는 온갖 능력과 기능이 이 시기부터 싹이 터 자라게 되고 어른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으려 한다. 이 능력과 기능의 싹이 무시되고 권리와 혜택이 좌절되었을 때 어린이는 성장하여 숙련된 기능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른이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를 누리게 된다.

어린이가 더 바람직하고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모름지기 어린 시절을 잘 보살피고 지도해야만 한다. 이 지도와 보살핌이 소홀하여 성인이 바라는 것

과 같은 어린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어린이면 어린이 다운 어린이지 어른다운 어린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어린이다운 어린이로 키우기 위해 올바른 대우를 해 줄 것이며 어린이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도록 힘써야 한다.

최근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 시설은 어린이들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 좋은 시설이라 하겠다.

어린이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도서관은 교육기관에서 그 행정을 맡고있는 국민학교 도서관과 공공기관에서 그 행정을 맡고있는 도서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이를 어린이 및 교육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직하고 운영·관리하며 봉사하는 교육시설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어린이를 위해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를 조직하고 운영관리하며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공공시설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자료 또는 그들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온갖 자료를 수집하고 일정하게 보관하여 항상 그들이 이를 이용하기 편하게 조직하고 관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는 공공시설 또는 교육시설이므로 이 시설을 통해 어린이들은 그들의 생활경험을 넓혀 더 바람직하게 성장해 나간다.

이 도서관 시설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그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 시키며 그들의 생활경험을 어떻게 확대하여 성장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통해 사회생활을 습득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도서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사회를 이해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며 적응해 나가는가를 알게 되고 사회인으로 첫 경험을 얻게 된다. 특히 즐기는 옛날 이야기 듣기(story telling), 인형극, 그림동화, 그림책 보기, 도서대출에서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자기 일을 완수하는 생활방법, 대인관계등의 여러가지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도서관 및 그 자료 이용으로 공공사회 시설의 이용법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도덕을 직접 체험하여 습득한다.

둘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여 일생을 통한 자기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그 방법을 연마한다.

도서관 및 그 자료 이용에서 어린이들은 지식 탐구와 연구의 생활태도를 기르며 탐구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문제거나 또는 작은 의문이라도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생활태도와 방법을 기르게 된다. 곧 연구하는 생활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자기 교육을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일생을 통해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셋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통해 그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취미를 조장시킬 수 있다.

각 분야의 도서를 통해서 또는 다방면의 도서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어린이는 새롭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어린이의 취미가 발견되고 조장되어진다. 책을 많이 읽은 어린이일수록 일반상식이 풍부하고 원만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된다.

넷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도서관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하며 남은 시간을 선용하는 습관 및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즉 어려서 부터 책을 가까이 하며 여가를 선용하는 습관을 얻게 된다. 할일 없이 뛰노는 것이 어린이들의 특징이다. 어린이의 놀이를 정력 과잉의 상태라고 인정하기도 하나 지나친 놀이는 오히려 그들을 해친다 하겠다. 적당하게 운동하고 적당하게 쉬면서 책을 가까이 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태도라 하겠다. 우리는 종종 여가의 시간을 위해 일원짜리 날 돈을 들고 만화가게로 드나드는 어린이를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보다 깨끗하게 단장되고 즐거운 책이 준비한 도서관을 소개한다면 기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린이들을 도와 주지 않는다면 만화에서 얻는 모든 영향을 입고 그들 나름의 세계를 형성하고 말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 선용을 지도하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이 찾아야 하는 위치는 크다 하겠다.

다섯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통해 독서법을 습득하고 독서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림책을 보는법, 읽는법 및 책다루는법을 익히게 되고 어린이도서관에게서 독서지도를 받음으로 보다 바람직한 독서생활을 영위하며 독서능력을 발전 시키게 된다.

여섯째, 어린이는 도서관 시설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도서관을 통해 생활함으로써 어린이는 성인과 똑 같은 개체의 이용자로 대우받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갖게 된다. 도서관에게 어른과 같이 도서를 대출받아 안고 나오는 어린이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하다. 이 즐거움이 다른 곳에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도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어 만족한 감정을 갖게 했다는 사실이 어린이 정서발달에 미치는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어린이들은 책을 읽음으로 여러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물질적 정서적 지적 정신적인 안정감에 대한 욕구,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무엇인가 예측된 구속감에 대한 욕구, 변화하고 싶은 욕구, 여러 욕구를 책을 읽음으로 그 내용에서 어린이들은 만족하고 있다. 비록 실제 생활경험에서 얻어진 만족은 아니라도 상상의 세계를 즐기는 어린이들에게는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생활경험을 넓혀 줄수 있는 곳이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도서관 시설을 우리 어린이에게 제공하여 그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우리 성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어린이 도서관도 일반도서관과 같이 시설 자료 및 사서 즉 어린이 도서관인(children's librarian)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첫째 시설에는 장소, 서고, 서가, 책상, 결상등이 속한다. 우리 나라의 시설의 크고 작은 것 보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해야 될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인천시립도서관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혀 설비되어 있지 않고 국민학교 도서관도 이대부속국민학교, 여수동국민학교 및 경남지방의 몇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도서관 없는 학교들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활동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독립된 공공 시설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각 공공도서관에는 분관에 까지 어린이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실 또는 어린이 corner가 준비되어 있다. 각국민학교에도 도서실이 설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어린이는 편리하게 시설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아동실을 설치하고 도서관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곳에는 Book mobile이 준비되어 순회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어린이 도서관이 부진한데 반하여 일종의 가정문고(?) 또는 가게문고라 부를 수 있는 만화가게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없는 곳이 없다. 만화가게

와 어린이 도서관과는 아무관계가 없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 시설이 미비한 우리 사회 골목의 요소마다 자리잡고 있는 이 가게문고가 초만원 사태라하니 일종의 독서시설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간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에 빼적거리는 나무의자와 책상, 불편하고 보잘것 없는 시설이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즐겁고 좋은 독서의場이되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 읽히고 있는 자료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가 문제된다. 자료는 여하튼 간에 이 독서시설로 집중되는 어린이들의 의욕은 중시해야 될 난문제이다. 높이 평가 해야 될 이 의욕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 도서관이 설비되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둘째 자료는 일반 도서관에서 구비하는 도서관 자료 중 어린이에게 알맞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해야 한다. 즉 독서능력에 따라 필요한 넓은 범위의 도서와 각 나라의 역사를 다룬책 광범위한 과학서적, 미술, 음악, 문학 및 참고서적등의 도서자료와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등의 비도서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독서준비기(Reading Readiness)에 필요한 자료와 그림책 및 모형자료는 어느 도서관보다 유의하여 수집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설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가 곧 이 자료이다.

어린이 도서는 일반 도서와 달리 출판사가 갖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한다. 일반성인용 도서와 달라 소비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에서는 주저하는 출판물이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의 출판율이 극히 적다. 혹 발행하는 출판사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인용 도서보다 장정이나 조판이 조잡하기 쉽고, 어린이에게 적당치 못하며 내용도 엄신을 기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아동도서는 성인용 도서에 비해 조잡하고 산만하여 어린이에게 추천할 수 없는 도서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도서를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어 책임있게 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 분과위원회가 기본도서목록을 내어 우량도서를 추천하고 있으며 각 서평지가 우량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일단 추천을 받은 도서는 그 판로(販路)가 확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마다 우량도서로 인정받기 위해 체제 및 그 내용에 엄정을 기하여 어린이에게 알맞은 출판물을 내고 있다.

자료에서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자료의 내용, 즉 도서의 내용이다. 어린이 도서는 어린이라는 성장기의 이용자를 위한 도서이므로 성인도서보다 더 적극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이 추가 되어야 한다. 도서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지적, 정서적, 물질적,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광범위하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동화, 소설, 전기등의 읽을거리인 아동문학작품과 지식전달을 위한 학습참고서 전문서적 및 백과사전 그의 그림책, 만화책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어린이 도서는 그 내용이 광범위 하여 모든 사실을 골고루 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린이로서는 그 내용이 동화, 소설등의 국한된 아동문학작품이 대부분이어서 학습에 도움을 주거나 전문분야의 지식을 전해주는 도서는 거의 없다. 또 그림책도 극히 빈약하다. 아동문학 작품도 국내 작품을 제외한 외국 작품은 약 30년전의 명작품 뿐이다. 국내 작품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이에게 알맞은 작품이 창작되어야겠다. 대개의 어린이들이 우리 창작품 보다 외국작품을 즐겨 읽고 우리 작품을 소홀히 하려는 이유를 아동문학가들은 알고 있어야겠다. 또한 골목마다 자리잡고 있는 만화가게는 우리 어린이의 유일한 독서시설이다. 이 시설의 자료는 몹쓸 도서로 인정받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그리도 즐기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어린이를 보살피고 지도할 성인들은 알아야 한다. 만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본다면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만화의 80%가 저속하고 살벌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런 만화에서 어린이들이 받는 영향은 그들의 언어 행동 및 정서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난 가는 만화에 대한 좋지 못한 반응을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반응이 좋지 못하다고 근절시키는 것 보다 그 내용을 선도하는 방향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 A.L.A.에서는 아동문학의 발전과 아동도서의 질적향상을 위해 Newberry Medal 과 Caldecott Medal 을 정하고 해마다 수상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상이 마련되어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小川賞을 위시해서 10여종류가 된다. 이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너무 방관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요소는 사서 즉 어린이도서관인이다. 어린이를 맡아 그들의 자료를 정리 보관하고 그들에게 봉사할 도서관인을 가르킨다. 이 children's librarian은 일반사서와 달리 먼저 어린이를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며 어린이를 지도하고 이끌어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도서관 훈련과 교사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어린이 도서관인은 다음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다방면에 흥미를 가진 사람

자라고 있는 여러 층의 어린이를 대하므로 어떤 질문이 나올찌 모르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 범위가 극히 광범위하다. 고로 비록 얕으나 넓은 지식과 흥미를 가지고 어린이를 대해야 한다.

② 활기있고 생기있는 사람

어린이들은 항상 움직이며 생기있는 운동을 즐긴다. 이런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같이 활동적이며 생기있고 명랑하여 항상 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③ 건강한 사람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이므로 병에 대한 감염율이 세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생활 할수 없다.

④ 재치있는 사람

어린이는 무엇이나 모방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발전할 때마다 비약하는 어린이들은 가끔 엉뚱한 질문이나 행동으로 성인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런 때마다 재치있는 답변과 요령있는 지도로 어린이를 이끌어야 한다.

⑤ 열심히는 사람

어디서나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완수할 사람이야 한다. 발달한 어린이와 생활할 사람이 게으르거나 일에 요령을 찾는다면 어린이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어린이들의 좋지 못한 표상이 되기 쉽다. 또한 이용자가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기에 보다 더 열의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어린이 도서관의 모든 일을 감당할만큼 부지런하고 열의가 있어야겠다.

⑥ 정력적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일이 많은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은 좀 더 세밀하고 차분한 정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어린이들 자체가 발달한 활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할 사람은 꾸준하게 정력적이어야 한다.

⑦ 어린이와 같이 생활하며 어른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린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쉽게 어른들의 일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른으로서 어린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어린이와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건을 갖춘 좋은 도서관인이 되기 위해 일정한 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운동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인을 먼저 양성하고 배출하였으며 A.L.A. 어린이 도서관인분과가 따로 조직되어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자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인을 훈련하는 교육과정은 전혀 없고 따라서 어린이 도서관인도 없다 하겠다. 맡고 있는 일이 어린이 도서관이므로 어린이도서관인이 된분들이 대부분이다. 특별한 뜻을 두고 어린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을 제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이 도서관인은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욕구불만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를 이끌어 줄 어린이도

서관을 설치하기에 앞서 어린이 도서관인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인들은 일반도서관인과 달리 특수 취급을 받고 고립되기 쉽다. 별로 좋지않은 사서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인 스스로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의 지위와 자질 향상을 위해 공지를 가져야겠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적절한 과정의 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강구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 도서관의 삼요소를 들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더듬어 보았다. 진정 우리의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어린이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 바람직한 어린이 도서관 운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공공도서관마다 아동도서관실을 준비하자.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 어린이도 당연히 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시설만 구비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린이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하고 성인에게와 똑같이 어린이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성인을 위한 시설도 미미한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어린이에게 이 혜택을 주지 못하고 할 일 없이 거리를 헤메거나 좌왕우왕하는 문제아를 구하려 쓸데없는 정력을 소비하기 전에 그들의 욕망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될 의무가 성인에게 있다.

둘째 사립국민학교와 일반국민학교에 도서관실을 완비하게 한다. 학교도서관 운동에 호응하여 국민학교에서도 도서관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연구지정 학교를 두어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문교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루 속히 문제를 타개하고 많은 어린이들에게 학교도서관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매년 증가하는 적령기의 학동을 위해 문교부는 사립국민학교를 인가하고 있다. 이 사립국민학교는 일반국민학교와 달리 행정당국의 간단한 조처 여하에 따라 도서관 시설이 완비될 수 있다고 본다. 학교 중심적인 교육시설이 도서관이므로 국민학교 시설 조항에 이 도서관 완비를 삽입하여 미비한 경우 학교인가를 불허했다면 현재 우후죽순같이 설립되고 있는 모든 사립국민학교가 어린이 도서관실을 완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반국민학교와 달리 행정당국의 배려있는 조처가 어린이 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는 우량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 어린

(15면에 繼續)

위와 같이 포유동물을 것먹이 동물로 訂正하고 다시 p.370에 와서

p.370
접촉반응(接觸反應) 541.3
xx. 화학; 화학/물리·이론
접촉전염 →전염병
_____것먹이 동물
정골법(整骨法) 651.8

와 같이 追加한다. 勿論 必要한 參照指示도 追加 記錄해 주어야 한다.

6. 結 論

以上 主題名標目表를 學校圖書館에서 使用할 때 誘發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例示하여 보았다. 이를 適切히 使用하기 爲하여 標目表를 訂正(削除, 追加)해 가면서 使用할 것을 論했으나 事實上 標目表를 訂正하며 使用한다는 것 또한 容易한 일은 決코 아니다. 標目表를 訂正한다는 것 또한 莫大한 業務量을 招來함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 解決策은 없을까? 한 가지 方案이 남아 있다고 본다. 即 初·中等學校別의 專用 標目表의 制定이다. 이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가 發刊되며는 司書教師의 業務量도 大幅 減少될 것으로 믿는다. 現標目表를 보며는 長長 500페이지에 達하며 九千餘個의 標目이 例示되어 있다. 여기에 →참조가 大略 五千餘個, 標目으로 採擇된 것만도 近 四千餘個(細目도 包含)가 있으며 여기에 P XV에 指示한 고유명, 단체명, 보통명等 및 P XV의 細目表의 細目を 追加시킨다면 四千個보다 훨씬 더 많은 標目的 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中等學校의 敎科課程에 나오는 語彙 속에서 主題를 採擇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까지는 必要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더우기 參照主題名 五千餘個에는 中等學校圖書館에서는 必要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므로 中等學校 敎科課程內의 語彙를 嚴密히 檢討하여 主題를 選定한다면 標目으로 採擇할 수 있는 主題가 約 二千個, 參照主題가 約 千個에서 二千個로 大幅 縮小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範圍內에서의 學校圖書館用 主題名標目表가 誕生한다면 司書教師의 業務量의 減少도 감소이거니와 學生들의 카야드 索出도 容易하여지고 따라서 閱覽의 効果도 크게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發展 途上에 있는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의 前途에 미치는 影響도 크게 左右되는 問題라고 생각된다. 모름지기 學校圖書館에서 主題名 標目表의 使用의 繁雜이 두려워 主題名 目錄을 내지않아 閱覽者에게 不便을 주는 곳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學校圖書館이 하루 速히 發展하여 正常的인 圖書館 運營이 이루어짐으로써 前進하는 敎育에 많은 功獻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參考文獻>

李載喆編. 주제명표목표. 서울. 연세대학교. 1961.
 韓國圖協編. 韓國十進分類法. 서울. 1964.
 日本全國學校 件名標目表 —高校用— 東京. 明治圖書館. 昭和 29
 圖書館協會
 " " —中學校用— "
 " 件名目錄의 作成. 東京. 昭和37.
 山下榮件. 件名目錄의 作り方. 京都. 蘭書房. 1953.

(25面에서 繼續)

이 도서관 자료의 빈곤을 앞에서 상세히 더듬어 보았다. 우량도서 선정으로 악서를 추방하고 어린이나 부모가 마음놓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우량도서 추천을 위해 각 출판사마다 매사에 유의하여 어린이에게 알맞는 도서를 간행할 것이며 그 내용도 향상될 수 있다. 아동문학도 이 기회에 보다 바람직한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어린이가 즐겨할 수 있는 창작품이 배출될 것이다.

넷째 어린이 도서관인을 교육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자료가 준비되었어도 이를 관리할 도서관인이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로 그치고 만다. 어린이 도서관인이 자리잡고 도서관을 설비한다면 보다 쉽게 자료와 시설이 완비될 수 있고 어린이 도서관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진다. 일단 훈련받은 도서관인이 실무에

종사하며 더 바람직한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 노력한다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사서를 위해서는 대학과정과 수차에 걸친 강습회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관인을 위한 강습회나 교육과정은 거의 없었다. 국민학교 도서관운동이 활발치 못한 이유도 도서관인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사서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더 따르는 실정이므로 담임교사의 지도가 큰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학교 교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사서교사가 이수해야 될 과정을 준비하고 누구나 필수로 이수하게 한다면 국민학교 도서관인은 쉽게 훈련되리라 생각한다. 어린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어린이도서관인의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